

2023년 4월 중국 무역 동향



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

2023. 5. 19

T. (86-10) 6505-2671/3 / E-mail : beijingk@kita.net

◎ 요약

○ (수출) 4월 중국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8.5% 증가

- 10대 주요 수출품목 중 5개 품목의 수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증가하였으며, 특히 1~4월 자동차 수출액이 103.6% 대폭 증가
- 4월 수입 둔화로 무역수지는 902억 달러 기록

○ (수입) 4월 중국 수입은 전년 동월대비 △7.9% 감소

- 10대 주요 수입품목 중 6개 품목의 수입액이 감소하였으며, 1~4월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입액은 △36.7% 감소
- 1~4월 석탄 및 갈탄 수입액은 53.9% 대폭 증가

1 수출입 동향

- 4월 수출액은 8.5% 증가한 2,954억 2천만 달러(약 395조 원), 수입액은 △7.9% 감소한 2,052억 1천만 달러(약 275조 원), 무역수지는 82.3% 증가한 902억 1천만 달러(약 120조 원) 흑자를 기록
 - 4월 수출은 한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으며, 1~4월 누계 기준 무역수지는 2,941억 9천만 달러(약 393조 원) 흑자로 전년 동기대비 38.2% 증가

< 중국의 수출입 추이 >

(단위: 억 달러, %)

구 분	2021	2022	'23.3월	'23.1분기	'23.4월(당월)	'23.1~4월(누계)
수 출	33,571 (29.6)	35,936 (7.0)	3,156 (14.8)	8,218 (0.5)	2,954.2 (8.5)	11,169.6 (2.5)
수 입	26,867 (30.0)	27,160 (1.1)	2,274 (△1.4)	6,171 (△7.1)	2,052.0 (△7.9)	8,227.6 (△7.3)
수 지	6,704	8,776	882	2,047	902.1	2,941.9

출처: 중국 해관총서

- 중국의 4월 수출입총액은 5,006억 3천만 달러(약 669조 원)로 1.1% 증가했으며, 1월부터 4월까지의 누계 수출입총액·수출액·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$\Delta 1.9\%$ 감소, 2.5% 증가, $\Delta 7.3\%$ 감소
 - (수출) 10대 주요 수출품목 중 5개 품목의 수출액이 증가하였으며, 1~4월 자동차 수출액은 103.6% 급증
 - 수출증가율은 3월 14.8% 두 자릿수에서 4월 8.5% 한 자릿수로 감소하였고, 중국의 최대 무역대상국인 ASEAN으로의 수출 감소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
 - (수입) 10대 주요 수입품목 중 6개 품목의 수입액이 감소하였으며, 특히 1~4월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입액은 $\Delta 36.7\%$ 감소
 - 위드코로나 전환 이후에도 내수 부진 징후가 지속되며, 중국 공장 생산량이 전반적으로 낮고 연쇄적으로 수입 원자재 수요도 약세
- 글로벌 제조업 PMI지수는 8개월 연속 기준선을 하회하여 경기 둔화 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며, 중국 수출입 회복에 대한 압박은 더욱 가중
 - 4월 중국 수입이 예상외로 급감하면서 중국의 글로벌 경기 부양 효과 기대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짐
 - 글로벌 시장의 수요 위축으로 중국 제조업 침체도 불가피할 수 있으며, 중국 정부의 재정 부양책을 통한 내수 회복 가능성도 제기됨
 - 한편, 러-우 지정학적 갈등, 유럽 에너지 부족 국면은 중국 공급망 우위 및 수출 점유율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
 - 향후 중국 공업용 석탄 수요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, 중국의 석탄 및 갈탄 수입 강세가 이어질 수 있음

< 수출입 실적 및 전망에 대한 국내외 기관 평가 >

구분	기관	주요내용
중국	 해관총서 (海关总署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~4월 중국의 전체 무역총액 중 ASEAN 비중은 15.7%, EU 비중은 13.5%, 미국 비중은 11.2% 일본 비중은 5.5%로 집계됨 - 지난 4개월 동안, 민영기업의 수출입 비중이 52.9%로 가장 높았고, 국영기업, 외국인투자기업 비중은 각각 16.4%, 30.5%로 나타남 - 기계제품 및 노동집약제품의 수출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으며, 철광석, 원유, 석탄, 대두 수입량은 증가하였고 천연가스 수입량은 감소
	 화시증권 (华西证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가별로는 중국의 대아프리카 및 대러시아 수출 강세가 이어지고 있으며, 품목별로는 자동차(새시 포함), 철강 등이 수출성장세를 견인 - 원자재 수입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며 내수 경기회복 이후에야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- 전년도 기저효과로 단기간 수출 증가폭은 감소할 수 있으나 8~12월에는 점차 안정될 것으로 예상
	 차이신 연구원 (财信研究院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국의 4월 대ASEAN 수출액(462억 달러)은 3월(564억 달러) 대비 크게 감소하여 수출지지 효과는 소폭 하락 - 4월, 중국의 주요 18개 수출 품목 중 16개 품목의 수출 수량이 감소하였으며, 9개 품목의 수출 가격이 감소 - 중국의 4월 수입 증감률(△7.9%)은 3월(△1.4%)대비 하락폭이 확대되었으며, 내수 수입 수요가 여전히 위축된 양상을 보였음 - 글로벌 제조업 PMI지수는 8개월 연속 기준선을 하회하여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중국 수출에 글로벌 수요 둔화 압력이 크게 작용할 수 있음 - 한편, 러-우 지정학적 갈등, 유럽 에너지 부족 국면은 중국 공급망 우위 및 수출 점유율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
해외	 로이터 (Reuters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국의 4월 수입은 급격히 감소하였고, 수출도 증가폭이 둔화되어 제로코로나 조치 해제 이후에도 내수 부진의 징후 지속. 글로벌 경제 둔화 등 다중 압력 작용 - 중국 공장 생산량이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연쇄적으로 수입 원자재 수요도 약세 - 4월 반도체 수입 수량 15.3% 감소는 해당 부품의 재수출 시장 수요 축소를 의미 -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중국 수입이 2022년 수준을 쉽게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실적이 부진하여 위드코로나 이후 강력한 경제 회복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분석 - 향후 글로벌 경기 악화가 지속되고, 중국 제조업 부문 침체도 불가피하다고 전망 - 이에 대응하여 중국 정부가 재정 부양책 지원을 위해 제조업 노동시장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음
	 블룸버그 (Bloomberg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4월 수입은 시장기대치(0.2%)를 크게 하회하여 올해 가장 큰 하락세를 보임 - 수출증가율이 플러스 성장을 보였으나 이는 작년 동월 코로나 팬데믹 봉쇄로 급감한 수출량을 겨우 상회한 수준으로 기대치보다 상당히 낮은 실적으로 평가됨 - 향후 글로벌시장의 전자제품 수요 약세, 공급망 재배치 등의 요인으로 중국 IT제품 수출입 실적도 둔화될 수 있음
	 SCMP (South China Morning Post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~4월 중국의 아프리카로부터의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11.8% 감소한 355억 달러로 집계. 올해 초부터 중국은 앙골라, 콩고민주공화국, 알제리, 이집트, 잠비아 등 국가로부터의 에너지품목 수입을 감축 - 이는 중국이 강조해 온 아프리카 주요 국가와의 무관세 무역확대 등 여러 협력조치와 대조된 양상 - 중국의 대아프리카 수출은 1~4월 기간 동안 26.9% 증가한 589억 달러 기록

출처: 각 기관 및 언론사 발표 (2023. 5. 18)

- (국가별 동향) ASEAN(누계 수출증감률 15.0%), 아프리카(26.9%), 중남미(3.0%), 한국(4.9%) 지역으로의 수출은 증가, 미국(Δ 14.3%) 및 EU(Δ 4.3%), 지역으로의 수출은 감소
 - 동북아경제권 내 한국(4.9%), 일본(0.8%)으로의 수출액은 증가하였으나 홍콩(Δ 7.2%)은 감소하였고, 동남아시아 대표 교역국인 베트남(5.2%) 수출액은 증가. 對아프리카 수출증가의 주요 요인에는 아프리카 주요국의 대량 공업품 수요 확대 등이 있음
 - 수입의 경우, 중남미(누계 수입증감률 1.3%), 호주(13.6%), 러시아(24.8%)로부터의 수입액은 증가하였으나 ASEAN(Δ 6.3%), EU(Δ 1.8%), 미국(Δ 2.0%), 대만(Δ 27.5%)등 주요 국가 및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감소
 - 중국의 對한국 1~4월 누계 수입은 Δ 27.7% 감소하였고, 對일본 수입도 Δ 18.5% 두 자릿수 감소

< 4월 중국의 TOP10 수출입 대상국(지역) >

(단위: 억 달러, %)

순 위	수 출			수 입		
	국가별	금액	1~4월 누계증감률	국가별	금액	1~4월 누계증감률
1	*ASEAN	462	15.0	*ASEAN	307	Δ 6.3
2	*EU	447	Δ 4.3	*EU	234	Δ 1.8
3	미국	430	Δ 14.3	*중남미	172	1.3
4	홍콩	223	Δ 7.2	대만	153	Δ 27.5
5	*중남미	207	3.0	호주	134	13.6
6	*아프리카	171	26.9	미국	133	Δ 2.0
7	일본	139	0.8	일본	132	Δ 18.5
8	한국	136	4.9	한국	122	Δ 27.7
9	베트남	120	5.2	러시아	96	24.8
10	인도	98	4.6	독일	89	Δ 3.9

출처: 중국 해관총서

*EU, ASEAN, 중남미, 아프리카 등에는 상기 개별국가 실적 포함됨

- (품목별 동향) 수출 1위 품목인 컴퓨터 및 주변기기(비중 3.8%), 2위 의류 및 부자재(비중 3.3%), 3위 방직실 및 직물(비중 3.2%)의 수출액은 각각 전년 동기대비 Δ 26.9% 감소, 2.5% 증가, Δ 8.0% 감소

- 수입 1위 품목인 반도체 및 집적회로(비중 9.7%)는 1~4월 누계 기준 수량 △21.1% 감소, 금액 △25.6% 감소
- 2위 원유(비중 8.8%)는 수량이 4.6% 증가했으나 금액은 수입단가 하락 영향으로 전년 동기대비 △11.6% 감소. 3위 철광석 및 정광(비중 3.9%) 또한 수량 8.6% 증가, 금액 4.0% 감소

< 4월 중국의 TOP10 수출품목 >

(단위: 억 달러, %)

순 위	품 목	수량 기준		금액 기준		
		수량	1~4월 누계증감률	금액	1~4월 누계증감률	비중
1	컴퓨터 및 주변기기	-	-	152	△26.9	3.8
2	의류 및 부자재	-	-	129	2.5	3.3
3	방직실 및 직물	-	-	127	△8.0	3.2
4	반도체 및 집적회로	212억 개	△11.7	110	△15.2	2.8
5	플라스틱제품	-	-	95	4.4	2.4
6	휴대폰	6,007만 대	△13.2	90	△10.5	2.3
7	철강	793만 톤	55.0	87	32.8	2.2
8	자동차(새시 포함)	42만 대	76.5	83	103.6	2.1
9	가전제품	31,860만 대	△1.4	80	△2.5	2.0
10	자동차 부품	-	-	78	15.8	2.0

출처: 중국 해관총서

< 4월 중국의 TOP10 수입품목 >

(단위: 억 달러, %)

순 위	품 목	수량 기준		금액 기준		
		수량	1~4월 누계증감률	금액	1~4월 누계증감률	비중
1	반도체 및 집적회로	387억 개	△21.1	271	△25.6	9.7
2	원유	4,241만 톤	4.6	245	△11.6	8.8
3	철광석 및 정광	9,044만 톤	8.6	109	△4.0	3.9
4	식량(곡류)	1,213만 톤	0.5	66	8.6	2.4
5	석탄 및 갈탄	4,068만 톤	88.8	50	53.9	1.8
6	동(銅)광석 및 정광	210만 톤	6.7	48	△6.0	1.7
7	천연가스	898만 톤	△0.3	48	△0.2	1.7
8	대두	726만 톤	6.8	47	12.5	1.7
9	의약재 및 약품	31,767톤	36.1	46	30.8	1.6
10	컴퓨터 및 주변기기	-	-	40	△36.7	1.4

출처: 중국 해관총서

- 4월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(PMI)는 전월 수치(51.9) 보다 감소한 49.2로 하락했으며, 생산자물가지수(PPI), 소비자물가지수(CPI)는 각각 전년 동기대비 $\Delta 3.6\%$ 하락, 0.1% 상승
 - 4월 PMI는 4개월 만에 기준선(50)을 하회하며 제조업 경기 위축 양상을 보였고 주요 원인에는 시장 수요 감소, 화학 섬유, 고무 플라스틱, 금속 제련 업종의 침체 등이 있음
 - 4월 PPI($\Delta 3.6\%$)는 7개월 연속 마이너스로 산업재 가격의 전반적 하락 영향이 지속 반영됨. 4월 CPI(0.1%)는 전년 동월과 비슷한 수준 유지

< 최근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>

구 분	2020	2021	2022	'23.2월	3월	4월	
경제성장률(%)	2.2	8.1	3.0	4.5		-	
소매판매 증감률(%)	$\Delta 3.9$	12.5	$\Delta 0.2$	3.5	10.6	18.4	
고정자산투자 증감률(누계, %)	2.9	4.9	5.1	5.5	5.1	4.7	
산업생산 증감률(%)	2.8	9.6	3.6	2.4	3.9	5.6	
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PMI(%)	51.9	50.3	47.0	52.6	51.9	49.2	
소비자 물가지수 CPI(%)	2.5	0.9	2.0	1.0	0.7	0.1	
생산자 물가지수 PPI(%)	$\Delta 1.8$	8.1	4.1	$\Delta 1.4$	$\Delta 2.5$	$\Delta 3.6$	
실업률(기말, %)	5.2	5.1	5.6	5.6	5.8	5.2	
외국인직접투자(억 \$, %)	1,444(4.5)	1,735(20.2)	1,891(8.0)	206.9($\Delta 6.0$)	-	-	
외환보유액(억 \$, 기말)	32,165	32,502	31,277	31,332	31,839	32,048	
평균 환율(위안/달러)	6.8974	6.4512	6.7208	6.8296	6.8982	6.8852	
한국의 대중국 무역 (억 \$, %) *한국 통계기준	수 출	1,326 ($\Delta 2.7$)	1,629 (22.9)	1,558 ($\Delta 4.4$)	99 ($\Delta 24.2$)	104 ($\Delta 33.4$)	95 ($\Delta 26.5$)
	수 입	1,089 (1.5)	1,386 (27.3)	1,546 (11.5)	110 (5.9)	132 (4.5)	118 ($\Delta 4.4$)
	수 지	237	243	121	$\Delta 11.4$	$\Delta 27.7$	$\Delta 22.7$

출처: 중국 국가통계국, 중국 상무부, 중국 인민은행, 산업통상자원부, 한국무역협회

주: 4월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데이터는 잠정치임